

정직과 배려 - 한국축산식품학회 창립의 주역 채영석 교수님

이 성 기 (Sung Ki Lee)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축산식품전공

들어가며

채영석 교수님은 1970년부터 1997년까지 27년간 강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우리 학회에 많은 족적을 남기셨다. 1978년에 한국축산식품학회의 전신인 한국식육연구회를 설립하셨던 핵심멤버였고, 그 후 학회장 등 중요 보직을 역임하시면서 봉사하셨던 분이다. 특히 1992~1993년 회장임기중에 기존 고기분야에 우유, 계란분야를 추가하여 지금의 한국축산식품학회로 개칭하고 확대시킨 학회창립의 주역이시기도 하였다.

나에게 채영석 교수님은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대학시절부터 오 늘까지 40여년 동안 교류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이어왔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반가운 목소리는 여전하시지만, 세월의 깊이만큼 탁한 음색으로 변하신 것 같다.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연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목욕탕에서 누굴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아 아직도 건강하게 이런 저런 활동도 하시는 것 같다.

예전의 학회창립이나 활동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인생은 잠시이고 우리의 삶을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주고 떠나는 나그네이지. 보잘 것 없는 자랑, 명예 운운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솔직히 난 되돌아보아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위인이 못되네. 그러니 나에 대해 미사여구와 같은 글을 제발 쓰지 말게나. 부탁이네.” 라고 말씀하셨다. 공수래공수거라 했던가? 본인 말씀에도 나이가 들다보니 주위 친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셨다. 연세 때문에 약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 같지만, 사실 예전부터 내려놓고 욕심 없는 삶의 기본적인 인생관, 그대로이시다. 교수님으로부터 학회와 관련된 소위 숨은 사연이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포기하고 그 동안 제자로서 보고 느낀 점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교수님과 인연

내가 처음 교수님과 만난 것은 대학 신입생 초기에 “도산연구회(홍사단 아카데미)”라는 동아리

에 들어간 직후부터였다. 당시 동아리 지도교수이셨다. 교수님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대화하고 식사도 자주 하였으며 방학 때 시골에 봉사도 함께하기도 하였다. 먼 훗날 알았던 사실이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시절이라서 이념 동아리에 무작위로 할당되어 지도관리(?)하도록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도교수가 되었다고 하셨다. 아무튼 이념동아리에 축산학과 제자가 1명 끼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런 저런 인연으로 교수님의 주 과목인 육가공학 학과목까지도 친숙하게 되었고, 결국 내가 대학원을 가서 더 공부하도록 꿈을 심어주신 계기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한국식품연구원에 8년간 다니다가 모교로 91년에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다시 교수님께서 97년 2월 정년퇴임까지 6년간 같은 학과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그 시절에 교수님께서 축산식품학회 회장이 되셨고 나를 기획간사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님과 소위 인연이 깊은 관계로 오늘의 내가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셨고 여러모로 도와주셨다.

정직과 강직, 그리고 배려

교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본인을 과시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항상 당당하고 곧은 느낌을 주신다. 본인의 인생관대로 재직시절에도 교수사회와 학회활동 중에 언제나 바른말을 하시는 그런 어른이시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여 정직하시고 화끈하며 욕심이 없어 항상 청빈하게 사셨다. 만사 대인관계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깔끔하게 사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먼저 배풀고 가능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으로 기억된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존경을 받으셨고, 때로는 너무 깔끔하셔서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교수님은 예산농전을 나오시고 1952년에 서울농대 축산학과에 입학하시고 1956년에 졸업하셨다. 한석현 전 건국대 축산대 교수님과 예산농전, 대학교 동기라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예산농고 교사, 충남대 강사를 거쳐 1970년 3월 1일에 강원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셨다. 1997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27년간 재직하시면서 당시 우리나라 축산학 분야에 불모지였던 육가공학을 가르치셨다. 재직중에 충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강원대 재직중에 학장, 연구소장, 목장장 등 교내 보직을 두루 겸임하셨다. 1997년 2월에 대통령 국민훈장을 받으시고 퇴임하셨다.

당시 육가공학은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보아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가공한다는 것은 사치스럽게 생각되던 시절이었다. 겨우 경제발전의 기지개를 켜던 시절이라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시기였다. 내가 대학을 다녔던 70년대 중후반까지 학교에 실험실습용 육가공 제조기계설비가 전무하였다. 교수님께서 육가공 실습으로 양념육, 소시지, 햄을 제조를 하는데 땅을 깊게 파서 웅덩이 속에 숯을 피우고 땅위에 철망을 깔아 고기를 구웠고, 고장난 철제 캐비닛을 개조하여 그 속에서 소시지와 햄을 훈연시켰다. 고육지책으로 화로와 훈연실을 만드신 것이었다. 그러나 교수님은 강의중에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더 잘살게 될 것이고 서양처럼 고기와 육제품을 많이 먹을 것이다”고 강조하셨다.

선생님은 전공서적뿐 아니라 외국의 시사적인 것, 미래에 관한 내용, 일본서적을 탐독하셨고 수업시간에 자주 말씀하셨다. 학생이 전공공부뿐 아니라 시사 교양적인 것도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강원대학교 교수중에서 일본어 실력이 가장 뛰어나고 대화도 원어민 수준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교수님께서서는 지금까지 평생 일본의 춘추문예지와 같은 월간잡지와 일본 소설, 문학책 등을 읽으신다. 일본글이 한글 이상으로 읽기가 편하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난다. 일본 북해도 대학 등에 연수도 다녀오신 적이 있다. 유창한 일본어 때문에 일본의 여러 대학교에 많은 지인을 알고 계셨고 일본 대학과 학술교류 사업도 많이 하시곤 하였다.

교수님과 저자(1990년대 중반)



학회창립의 주역

이미 기술하였다시피 채영석 교수님은 학회에서도 산 증인의 한분입니다. 한국축산식품학회 전신인 한국식육연구회를 창립한 초기 핵심멤버이셨기 때문입니다. 학회 학술지 1호인 “식육연구회보” 제1권 1호(1979년 11월) 27쪽 범혁에 보면 “1978년 10월 7일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송계원 교수와 30여명이 모여 식육연구회 발기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회장 황칠성 교수, 부회장 송계원 교수, 김길득 사장을 추대하고 감사에 채영석 교수를 선정하였다”고 기술되어있다.

식육연구회 활동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늦은 90~91년에 부회장, 92~93년에 회장을 맡으셨다. 회장 재직중에 교수님은 식육연구회에서 우유, 계란분야와 합쳐 축산식품학회로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물론 혼자하신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식육연구회 핵심 회원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나는 기획간사가 되면서 비로소 학회의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채영석 회장님은 나를 데리고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며 우유 전공 교수와 만나서 통합의 필요성과 가입권유 등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하셨다. 당시 업무의 세부적인 진행상황이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부 우유전공 교수들이 식육연구회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 찬반이 갈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의 한국축산식품학회가 탄생한 것이다. 고기와 우유, 계란식품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축산식품학회가 정식적으로 출범된 것이다.

교수님은 학회출범 전후와 정년퇴임까지 학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87~89년과 94~97년까지 학회이사를 맡으셨다.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정년퇴임과 함께 홀연히 학회를 떠나셨다. 정년 퇴임후에도 헬스클럽에 나가시고 독서와 사람을 만나시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아쉬운 마음으로 글을 줄이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교수님의 높은 인격과 학문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하고 싶고, 관련된 아름다운 경험담도 기술하고 싶으나 혹시 교수님께 누가 될까봐 이만 생략하고 조심스럽게 펜을 놓을까 한다. 교수님은 현재 춘천 봉의산 기슭의 아파트에 사시고 있다. 슬하에 2남 2녀 자제분은 모두 결혼하여 춘천과 가까운 지역에 화목하게 살고 있다고 하신다. 부디 항상 젊은 기상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기원한다.